

헤어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요인

박승경
대전보건대학교 뷰티케어과

Job 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of Hair Designers

Sung-Kyeong Park
Department of Beauty Care, Daejeon Health Institute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미용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미용사 368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10월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여성 군,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비흡연군, 비음주군, 직위가 낮은 군,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업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군 및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 근무경력 및 월수입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연령, 근무경력 및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사대상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의 여러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job stress level of hairdressers, an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368 hairdressers working at a beauty salon in D Metropolitan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October 2019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ob stress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of women who were unmarried, non-drinking, less subjective health status, non-smoking, less career-oriented, having a lower monthly income, less satisfied with their work, and more willing to quit the job.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job stress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ge, work experience, and monthly income. Thus, the lower the age, time in the job, and monthly income, the higher the job stres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tress of the study subjects were age, drinking status, job position, career, monthly income, sense of work satisfaction, itness of the job, aptitude for work, and willingness to switch jobs or considering quitting the job. The above results suggested that the job stress of the hairdressers surveyed involves several variables having sociodemographic, health-related,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Keywords : Hairdresser, Job Stress, Sociodemographic, Health-Related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Sung-Kyeong Park(Daejeon Health Institute Technology)

email: pskki@hit.ac.kr

Received May 4,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Revised May 20,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헤어 미용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헤어 미용사들은 기계화할 수 없는 인적 서비스업이라는 헤어 미용업 고유의 특성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과도한 신체적 및 정신적 노동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1].

직무스트레스란 직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이 업무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기는 유해한 정신적, 신체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2].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도에 맞는 직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직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된다[3].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역할문제, 보수문제, 동료와의 관계,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 및 업무의 반복성과 단조로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7].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의 특성, 즉 업무의 자율성이나 업무 요구도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8].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감이 낮아져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직장 내 전체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9].

그동안 국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0-14]이며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헤어 미용사들은 업무 특성 상 고객들의 다양한 업무요구에 따른 감정노동의 심화[15,16],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장시간 서서 팔을 어깨높이로 든 상태에서의 반복 작업[17], 퍼머 및 염색 등 모발관리 작업에 따른 화학물질에의 노출[18,19],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피부손상[20] 등, 다양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헤어 미용사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일반 다른 직업들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 미용사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헤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표본 수의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21]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시 검정력 0.95, 효과크기 0.10, 유의수준 $p < 0.05$, 예측변인 22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33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선정은 탈락률을 고려하여 D광역시 5개 구(區)별로 100명씩 500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미비한 설문지 164명을 제외한 368명(회수율 73.6%)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연구자 및 사전에 훈련된 조사가원이 해당 미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각 업소의 대표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조사대상 헤어 미용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시간외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2.3 연구에 사용한 변수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비만도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24세 이하」, 「25~29세」, 「3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보통이다」 및 「건강하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비만도(Body mass index; BMI)의 측정은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 신장은 Martin's 생체계측기를 사용하여 단위는 cm로, 체중은 체중계를 사용하여 단위는 kg으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기록하였다. 비만도의 산정은 체중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지수인 $[BMI(kg/m^2) = \text{체중}(kg) / \text{신장}(m)^2]$ 로 계산하였으며, 19.9이하를 마른군, 20.0~24.9를 정상군, 25.0이상을 비만군으로 구분하였다.

2.3.2 건강관련행위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으로는 1일 평균수면시간, 아침식사 여부, 간식섭취 유무, 운동여부, 흡연여부 및 음주여부를 조사하였다. 1일 평균수면시간은 「적당한 수면 군(7~8시간)」과 「부적당한 수면 군(7시간미만~8시간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아침식사는 「매일한다는 군」과 「가끔 또는 하지 않는다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간식섭취는 「가끔(주 2~3회)미만 군」과 「가끔(주 2~3회)이상 군」으로 구분하였고, 운동은 「가끔(주 2~3회)미만 군」과 「가끔(주 2~3회)이상 군」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흡연 군」과 「비흡연 군」으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주당 2~3일 미만 군」과 「주당 2~3일 이상 군」으로 구분하였다.

2.3.3 직업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직책, 자격증 소지여부, 근무경력, 1일 평균 근무시간, 월수입, 해어 미용사직에 대한 만족도, 해어 미용사직의 적성여부,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여부를 조사하였다. 직책은 「전문 해어 미용사」와 「보조 해어 미용사」로 구분하였고, 해어 미용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다. 근무경력에는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월수입은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25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업무에 대한 만족여부는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로 구분하였고, 직업에 대한 적성여부는 「맞지 않는다」, 「보통이다」, 「맞는다」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의사에 대해서는 「전환할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전환할 의사가 있다」로 구분하였다.

2.3.4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contents)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Karasek 등[22]의 직무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라 직장의 업무환경에 맞게 한글로 번역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3]. JCQ는 직장의 업무환경에 기인된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써 그 내용은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및 직장의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요구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업무의 자율성은 의사결정권한(decision authority) 3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ecision)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총 14개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0-1-2-3점을 부여한다. 직장의 사

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 4문항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을 부여하며, Karasek 등[22]의 점수 산정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점수산정 결과, 업무의 요구도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업무의 자율성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02이었다.

2.4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으로는 각 독립변수에 대해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으며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한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Table 1]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남성보다 여성에서($p=0.027$), 연령이 낮을수록($p=0.047$),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35$),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p=0.014$)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업무요구도는 남자보다 여자에서($p=0.016$), 연령이 낮을수록($p<0.001$),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02$),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p=0.005$) 유의하게 높았고, 업무의 자율성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군보다 대학 이상 학력군에서 ($p=0.036$),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p=0.003$) 유의하게 높았다. 상사의 지지도는 연령이 높을수록($p=0.030$),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021$)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료의 지

지도는 연령이 높을수록($p=0.030$),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p=0.028$),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016$) 유의하게 높았다.

3.2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서($p=0.014$),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업무 요구도는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p<0.040$) 유의하게 높았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p=0.038$), 비음주군보다 음주군에서($p<0.005$) 유의하게 높았다. 상사의 지지도는 간식섭취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18$), 비음

주군보다 음주군에서($p<0.023$)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료의 지지도는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p=0.034$), 비음주군보다 음주군에서($p<0.027$) 유의하게 높았다.

3.3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8$), 근무 경력이 낮을수록($p=0.042$), 월수입이 낮을수록($p=0.015$),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8$)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업무 요구도는 직위가 높은 군보

Table 1. Mean score of job stres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otal score of job stress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ex						
Male	66(17.9)	36.45±6.26	8.90±2.20	20.48±3.14	8.63±2.37	8.42±1.93
Female	302(82.1)	57.34±5.86	9.58±2.01	20.50±2.71	8.71±2.11	8.54±1.70
p-value		0.027	0.016	0.968	0.797	0.608
Age(years)						
≤24	143(38.9)	47.93±5.73	10.10±2.05	20.62±2.48	7.79±2.18	7.41±1.56
25-29	126(34.2)	47.11±5.42	9.37±1.62	20.59±2.85	8.61±2.12	8.52±1.67
30≤	99(26.9)	46.18±6.72	8.64±2.28	20.19±3.11	9.65±2.18	9.68±2.07
p-value		0.047	<0.001	0.492	0.027	0.030
Education						
≤High school	243(66.0)	47.05±6.04	9.52±2.13	19.33±2.87	8.79±2.18	8.56±1.78
College≤	125(34.0)	47.43±5.75	9.34±1.92	21.81±2.60	8.61±2.11	8.50±1.67
p-value		0.564	0.433	0.036	0.931	0.780
Marital status						
Married	91(24.7)	46.04±6.38	8.86±2.23	20.75±3.05	8.78±2.00	9.71±2.04
Unmarried	277(75.3)	47.55±5.75	9.65±1.97	19.74±2.66	8.60±2.20	7.46±1.64
p-value		0.035	0.002	0.003	0.979	0.02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56(15.2)	36.85±5.76	9.01±2.31	20.94±2.46	9.57±2.39	9.62±1.96
Fair	242(65.8)	46.89±5.93	9.36±1.97	20.40±2.76	8.54±2.11	8.57±1.68
Unhealthy	70(19.0)	58.42±6.04	10.14±2.05	20.44±3.12	8.34±2.02	7.50±1.79
p-value		0.014	0.005	0.425	0.021	0.016
BMI(kg/ m ²)						
<18.5	69(18.8)	46.59±5.35	9.30±1.70	20.62±2.92	8.18±1.91	8.47±1.46
18.5-22.9	259(70.4)	47.34±6.32	9.55±2.17	20.53±2.86	8.76±2.26	8.48±1.79
23.0≤	40(10.9)	47.12±4.14	9.10±1.91	20.05±1.98	8.12±1.71	8.85±1.87
p-value		0.611	0.332	0.360	0.187	0.146
Total	368(100.0)	47.18±5.94	9.46±2.06	20.49±2.79	8.69±2.15	8.52±1.74

Table 2. Mean score of job stress according to the health related behavior factors

Variables	N(%)	Total score of job stress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 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leeping hours(/day)						
Good(7-8h)	211(57.3)	47.14±5.97	9.43±2.00	20.50±2.74	8.70±2.27	8.49±1.79
Poor(≤7h or 8h≤)	157(42.7)	47.23±5.92	9.49±2.15	20.48±2.86	8.68±2.00	8.56±1.68
p-value		0.882	0.781	0.938	0.936	0.689
Having breakfast						
Everyday	94(25.5)	47.42±6.00	9.46±2.63	20.54±2.26	8.79±2.41	8.61±1.91
Sometime/never	274(74.5)	47.09±5.93	9.45±1.83	20.48±2.95	8.66±2.06	8.49±1.69
p-value		0.646	0.978	0.836	0.605	0.553
Snacking						
Sometime (≤2-3times/week)	136(37.0)	47.15±6.85	9.72±2.48	20.54±3.02	9.06±2.44	8.61±1.97
Often (2-3times≤/week)	232(63.0)	47.72±5.30	9.30±1.75	20.46±2.65	8.48±1.94	8.46±1.60
p-value		0.084	0.084	0.806	0.018	0.459
Exercise/sports						
Everyday/ sometime	180(48.9)	47.33±5.94	9.58±2.07	20.45±2.99	8.76±2.04	8.52±1.73
Never	188(51.1)	47.03±5.95	9.34±2.06	20.53±2.59	8.63±2.26	8.52±1.76
p-value		0.621	0.249	0.780	0.553	0.972
Smoking habits						
Smoking	136(37.0)	41.86±5.77	9.41±2.16	22.33±2.82	8.71±2.27	8.41±1.72
Non-smoking	232(63.0)	54.36±6.04	9.49±2.01	19.59±2.77	8.68±2.09	7.99±1.76
p-value		0.014	0.722	0.038	0.920	0.034
Alcohol drinking						
Sometime (≤2-3days/week)	13(3.5)	52.84±5.69	10.61±2.14	20.61±3.27	8.06±1.85	8.85±2.07
Often (2-3days≤/week)	355(96.5)	46.97±5.85	9.41±2.05	22.41±2.74	9.63±2.14	9.05±1.73
p-value		<0.001	0.040	0.005	0.023	0.027
Total	368(100.0)	47.18±5.94	9.46±2.06	20.49±2.79	8.69±2.15	8.52±1.74

다 낮은 군에서 ($p<0.001$), 근무 경력이 낮을수록 ($p<0.001$),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p<0.001$),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의 자율성은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군보다 맞다는 군에서($p<0.037$),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는 군보다 없다는 군에서($p<0.024$) 유의하게 높았다. 상사의 지지도는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군보다 맞다는 군에서($p=0.019$),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는 군보다 없다는 군에서($p<0.002$) 유의하게 높았다. 동료의 지지도는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에서($p<0.018$),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군보다 맞다는 군에서($p=0.022$) 유의하게 높았다.

3.4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사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는 연령($r=-0.301$, $p<0.01$), 근무경력($r=-0.331$, $p<0.01$) 및 월수입($r=-0.268$, $p<0.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의 업무요구도는 연령($r=-0.324$, $p<0.01$), 근무경력($r=-0.335$, $p<0.01$) 및 월수입($r=-0.335$,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사의 지지도는 연령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205$, $p<0.05$), 동료의 지지도에서도 연령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13$, $p<0.01$).

Table 3. Mean score of job stress according to the job related factors

Variables	N(%)	Total score of job stress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Job position						
Specialist	218(59.2)	46.50±6.10	8.89±1.90	20.37±2.99	8.65±2.17	8.57±1.87
Assistant	150(40.8)	48.17±5.58	10.28±2.02	20.68±2.47	8.76±2.13	8.45±1.55
p-value		0.008	<0.001	0.298	0.650	0.504
Job career(year)						
≤1	87(23.6)	47.59±5.46	10.16±2.02	20.64±2.50	8.36±2.06	8.42±1.61
1-4	113(30.7)	47.94±6.04	9.80±2.02	20.83±2.84	8.83±2.23	8.47±1.62
5-9	104(28.3)	46.98±5.80	9.31±1.81	20.32±2.74	8.77±2.07	8.55±1.71
10≤	64(17.4)	45.59±6.11	8.14±1.98	19.98±3.09	8.78±2.28	8.68±2.17
p-value		0.042	<0.001	0.221	0.440	0.853
Working hour/day						
<12	101(27.4)	47.86±6.41	9.48±2.17	20.67±2.70	8.93±2.42	8.77±1.95
12≤	267(72.6)	46.92±5.74	9.45±2.03	20.43±2.82	8.61±2.04	8.43±1.65
p-value		0.178	0.895	0.458	0.204	0.214
Monthly income(₩10,000)						
≤150	46(12.5)	47.19±4.58	9.91±2.09	20.43±2.14	8.43±2.15	8.41±1.30
150-250	200(54.3)	47.95±5.87	9.82±2.01	20.69±2.61	8.84±2.16	8.57±1.66
250≤	122(33.2)	45.95±6.18	8.69±1.93	20.20±3.24	8.56±2.15	8.49±2.01
p-value		0.015	<0.001	0.361	0.367	0.776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	235(63.9)	46.20±5.66	9.22±2.01	21.11±2.70	9.41±2.07	8.13±1.72
Dissatisfaction	133(36.1)	48.91±6.04	9.87±2.10	20.16±2.83	8.19±2.21	7.98±1.78
p-value		<0.001	0.004	<0.001	<0.001	0.018
Fitness of the job						
Fit	247(67.1)	46.46±5.73	9.20±2.07	21.32±2.71	9.51±2.07	9.41±1.70
Unfit	121(32.9)	48.65±6.11	9.99±1.94	19.84±2.92	8.07±2.28	7.74±1.82
p-value		<0.001	<0.001	0.037	0.019	0.022
Considering quitting the job						
With	81(22.0)	48.91±6.76	10.11±2.28	19.87±3.45	8.34±2.07	8.50±2.07
Without	287(78.0)	46.69±5.60	9.27±1.96	21.39±2.57	9.51±2.14	8.58±1.64
p-value		0.008	<0.001	0.024	0.002	0.775
Total	368(100.0)	47.18±5.94	9.46±2.06	20.49±2.79	8.69±2.15	8.52±1.7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job stress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Total score of job stress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Age	-0.301**	-0.324**	-0.051	0.205*	0.313**
BMI	0.044	-0.037	-0.012	0.126	0.057
Job career	-0.331**	-0.335**	-0.078	0.031	0.047
Working hour /day	-0.051	-0.042	-0.007	0.033	0.072
Monthly income	-0.268*	-0.335**	0.103	0.024	0.019
Sleeping hour /day	-0.003	-0.011	-0.054	0.055	0.021

*: p<0.05 , **: p<0.01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Variable	B	SE	Beta	t	p-value
Age	-0.420	0.185	-0.176	-2.682	0.008
Marital status(married/unmarried)	0.471	0.767	0.034	0.614	0.539
Alcohol drinking(sometime/often)	-5.067	1.618	-0.158	-3.132	0.002
Job position(assistant/specialist)	-3.904	2.151	-0.098	-3.540	0.012
Job career	-0.437	0.272	-0.218	-3.914	0.002
Monthly income	-0.382	0.208	-0.164	-2.572	0.042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dissatisfaction/satisfaction)	-1.914	0.725	-0.155	-2.641	0.009
Fitness of the job(unfit/fit)	-3.820	1.456	-0.095	-2.550	0.012
Considering quitting the job(without/with)	1.340	0.754	0.094	1.777	0.036
Adjusted R ² = 0.397 (F=9.759, p<0.001)					

3.5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음주여부, 직책,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9.7%이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헤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Karasek 등[22]의 Job Content Questionnaire(JCQ)를 우리나라 직장의 업무환경에 맞게 한글로 변환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설문도구에 대한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02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서,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24-2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헤어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활용이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Yoon 등[28]은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커피 음용군보다 비음용군에서,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사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29-32]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33-35]나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6-38]에서도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군과 수면시간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24-27]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직위가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on 등[28]과 Cho 등[29]의 선행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클수록, 업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수록,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Kivimaki 등[33]도 직위가 낮고, 근무경력이 낮으며,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Koh 등[34]은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의 요구도가 증가되고,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연령, 근무경력 및 월수입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Yoon 등[28]은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 및 근무경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Kim 등[35]의 연구에서도 직위가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령 및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업무 요구도는 증가되고, 업무에 대한 통제력은 저하되며, 상대적으로 월수입도 낮아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30-32]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수면시간 및 직장생활만족도를 지적하였으며,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는 커피음용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근무경력,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관련행위특성뿐만 아니라 직업관련 특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cross-sectional)로서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방식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응답의 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조사 보고가 대단히 미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과 같은 여러 요인별로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해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의 다양한 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지적된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미용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헤어 미용사 368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10월 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남성보다 여성에서($p=0.027$), 연령이 낮을수록($p=0.047$),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35$),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p=0.014$),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서($p=0.014$),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직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8$), 근무 경력이 낮을수록($p=0.042$), 월수입이 낮을수록($p=0.015$),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1$),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직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8$) 유의하게 높았다.
3.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연령($r=-0.301$, $p<0.01$), 근무경력($r=-0.331$, $p<0.01$) 및 월수입($r=-0.268$, $p<0.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다중 회귀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선 연령, 음주여부, 직위, 근무경력, 월수입,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및 직업전환의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9.7%이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사대상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의 여러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

- [1] S. M. Cho.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airdressers Practicing in Beautician Shop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5.
- [2] NIOSH Working Group. Stress at work. NIOSH: 1999.
- [3] C. S. Aneshensel.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 Rev Sociol*, Vol.18: pp.15-38, 1992.
<https://dx.doi.org/10.1146/annurev.so.18.080192.000311>
- [4] H. Cooper, L. Okamura, P. McNeil. Situation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activity and personal control. *J Res Personality*, Vol.29, pp.395-417, 1995.
<http://dx.doi.org/10.1006/jrpe.1995.1023>
- [5] R. J. Burke, A. M. Richardsen. Sources of satisfaction and stress among Canadian physicians. *Psychol Rep*, Vol.67, pp.1335-1344, 1990.
- [6] W. L. Hellerstech, R. W. Jeffery. The association of job strain and health behaviors in men and women. *Int J Epidemiol*, Vol.26, pp.575-583, 1997.
- [7] S. J. Chang, B. S. Cha, S. B. Koh, M. G. Kang, et al. Association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industrial workers. *Korean J Prev Med*, Vol.30, pp.129-143, 1997.
- [8] S. J. Chang, S. B. Koh, M. G. Kang, B. S. Cha et al. Epidemiology of psychosocial distress in Korean employees. *Korean J Prev Med*, Vol.38, No.1, pp.:25-37, 2005.
- [9] J. S. Bae, S. H. Yo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fire service officer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9, pp.5610-5620, 2014.
<https://doi.org/10.5762/KAIS.2020.21.5.433>
- [10] B. S. Cha, S. J. Chang, M. K. Lee, J. K. Park. Research on work stress and mental health status of the industrial works. *Korean J Prev Med*, Vol.22, No.1, pp.90-101. 1989.
- [11] K. T. Cha, I. W. Kim, S. B. Koh, S. J. Hyun, et al.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stress with self-perceived fatigue in white collar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Vol.20, No.3, pp.182-92. 2008.
- [12] Y. J. Jo,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6, pp.2598-2606. 2011.
<https://dx.doi.org/10.5762/KAIS.2011.12.6.2598>
- [13] Y.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habits in industrial workers. *Korean J Prev Med*, Vol.23, No.1, pp.33-42. 1990.
- [14] J. K. Oh. Structural modeling of stress, life style and health status in industrial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Vol.12, No.1, pp.26-40. 2000.
- [15] J. L. Cheong, Y. J. So. A study of Beautician Stress by work condition in Chon Ju Area Beauty shop, *Journal of the Koran Society of Cosmetology*, Vol.4, No.1, pp.275-287, 1998.
- [16] S. M. Cho. A study on the subjective fatigue symptom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hairdressers and aesthetician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17] D. M. Kang, J. T. Lee, M. S. Kang, S. H. Park, et al. Prevalence on Dermatologic, Respiratory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Hairdress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11, No.3, pp.385-392, 1999.
- [18] H. J. Schwartz, J. L. Arnold, K. P. Stroh. Occupational allergic rhinitis in the hair care industry: Reaction to permanent wave solutions. *J Occ Med* Vol.32, pp.473-475, 1990.
- [19] H. B. Walle, V. H. Brunsveld. Dermatitis in hairdressers. *Contact Dermatitis* Vol.30, pp.217-221, 1994.
- [20] L. Stock, J. Cone. Barbering and cosmetology in encyclopa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th e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Vol.100, pp.5-9, 1998.
- [21] F. Fau, E. Erdfelder, A. G. Lang, A. I.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scie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2, No.2, pp.175-191, 2007.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2] R. Karasek, T. Theorell, J. E. Schwartz, P. L. Schnall, C. F. Pieper, J. L. Michela. Job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US Health Examination Survey (HES) and th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ANES). *Am J Public Health*, Vol. 78, pp.910-918, 1988.

- <https://doi.org/10.5762/KAIS.2016.17.1.622>
- [23] S. J. Chang.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and the development work 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 [24] H. L. Wang.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and Leisure Use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f Beauticians.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25] M. A. Jang. The Effect of Estheticians' Personal Education on Job Turnover Intension and Job Stre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9.
- [26] M. K. Yang. Job Stress and Depression among Beau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9.
- [27] M. K. Yang. Impact of Hairdressers' Job Stress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Vol.13, No.1, pp.01-15, 2019.
<http://data.doi.or.kr/10.22649/JBAM.2019.13.1.1>
- [28] S. H. Yoon, H. J. Pak, Y. C. Cho. Job 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119 Rescu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 549-558, 2018.
- [29] K. H. Cho, D. B. Lee, Y. C. Cho. Psychosocial di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Korean Journal of Occup Environ Med, Vol.19, No.1, pp.26-37, 2007.
- [30] Y. J. Jo,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6, pp.2598-2606, 2011.
<http://dx.doi.org/10.5762/KAIS.2011.12.6.2598>
- [31] J. Y. Kim, I. S. Kwon, Y. C. Cho. Job satisfaction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public officers; and their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1, pp.341-351, 2010.
- [32] H. J. Park, S. K. Park,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social factors and job stres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9, pp.5610-5620, 2014.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9.5610>
- [33] M. Kivimaki, J. Vahtera, J. Pentt, J. E. Ferrie. Factors underly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downsizing on health of employees: longitudinal cohort study. BMJ, Vol.320, No.7240, pp.971-975, 2000.
<https://dx.doi.org/10.1136/bmj.320.7240.971>
- [34] S. B. Koh, M. A. Son, J. O. Kong, C. G. Lee, S. J. Chang, B. S. Cha.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atypical work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Vol.16, pp.103-113, 2004..
- [35] D. H. Kim, Y. C. Cho. Occupational stress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male workers in small-scale manufacturing industries under 50 member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0, No.10, pp.405-413, 2012.
- [36] K. S. Lee, I. S. Kwon, Y. C. Cho.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among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8, pp.3523-3531, 2011.
<http://dx.doi.org/10.5762/KAIS.2011.12.8.3523>
- [37] Y. H. Lim,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health status(SF-36)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745-4757,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745>
- [38] H. S. Yoon,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psychosocial factors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in Korea. Korean J Prev Med, Vol.40, No.5, pp.351-362, 2007.
<http://dx.doi.org/10.3961/jpmph.2007.40.5.351>

박 승 경(Sung-Kyong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6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뷰티케어과 부교수

〈관심분야〉

공중보건학, 건강관리, 피부미용